

# 은빛 요양원

풍요로운 노후의 삶을 도와드립니다

1호점 중부 뉴저지 Eatontown 2호점 서부 뉴저지 Pittstown

풍부한 경험과 수준 높은 전문가 서비스  
가정 같은 또 하나의 생활공간  
간호, 간병, 전문 재활치료  
한국문화 정서와 여가 활동

한국어 직통  
**732.770.0609**  
www.은빛요양원.com

# 헤럴드 기어 변호사

HAROLD J. GERR  
Attorneys at Law

자동차 혹은 트럭사고,  
척추나 디스크에 관련 된 사고,  
공사현장 사고, 뼈가 부러진 사고,  
범죄로 희생양이 된 사고,  
각종 상해, 사망사고

1-877-249-4600  
47 Raritan Ave. Highland Park. NJ

16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

# RE/MAX

## 준 풀턴 부동산

908-295-7053

준 '원출' 풀턴  
Sales Associate  
Re/Max Instyle Realty  
june@instylerealty.com

1378 Route 206 Suite 202, Skillman, NJ 08558 junefulton@remax.net

주님 세례  
축일

2021년  
12월 26일



#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KWIK MORTGAGE

# 퀵 모기지

주택융자, 상용건물, SBA융자

타은행에서 융자 거부된 분 상담  
Gabriel B Park (NMLS 1161224) Senior Loan Officer  
Direct (908) 293-2215  
gpark@kwikmortg.com / Licensed NJ NY PA CA FL CT MD VA TX

# VESTA·OH

Kitchen & Bath Renovation

## 부엌, 욕실 전문그룹

오용운 토마스 | m 917-662-8353 | kitchenoh@hotmail.com

# 은퇴플랜 및 재정설계 컨설팅

Advisors U Trust, LLC

401k, IRA, Annuity (개인연금)  
생명보험, 메디케어 & 건강 보험  
자동차 주택 건물 비즈니스 보험

박가브리엘 (732) 865-1597  
Licensed in NJ & NY advisorultrust@gmail.com

메디케어 무료상담

올바른 플랜을 선택할 수 있도록 무료 상담해 드립니다

박미원  
Independent Licensed Agent

문의 전화: 908 655 5339

# 이문식

Family Vision Center

Dr. Douglas M. Lee,  
Optometrist

각종 안질환 치료  
백내장 검사 및 녹내장 치료  
검안 및 시력 교정  
아동 시력 치료 및 시력 교정  
콘택트렌즈 및 안경 맞춤

P. 732-393-1210  
1734 Lincoln Hwy(Rt.27)  
Edison, NJ 08817  
에디슨 H-mart 앞

# 에디슨 현대정비

Hyundai auto repair  
종합정비

Auto Repair -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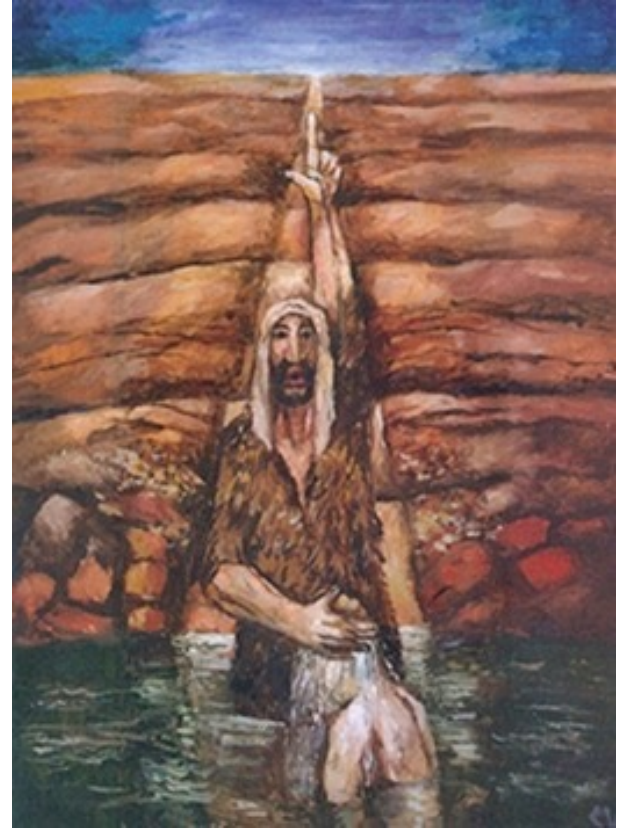
김도영 (Philip Kim)  
C/P : 732-853-5696  
Tel : 732-543-1110  
1808 Woodbridge Ave. (Rt.514)  
Edison, NJ 08817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 - 7 : 00 PM  
수 ~ 금 - 9 : 00 AM

주 일 (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 - 4 : 00 PM  
일요일 (영어) - 9 : 00 AM  
(한국어) - 11 : 30 AM



<이번 주 전례 안내>

# 제1독서 이사야서 42,1-4.6-7  
# 화답송 시편 29(28), 1과 2.3과 4.3과 9과-10(11과)

# 복음환호송 마르 9,7 참조  
○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 복음 루카 3,15-16.21-22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렸다.>

# BOYLAN

Funeral Home

Edison 732-572-0076

# ND EAST BRUNSWICK

NEW IMAGE DENTAL LLC

444 Ryders Lane  
East Brunswick, NJ 08816  
Tel. 732-432-8388

J. Woo D.D.S.

# 강준한의원

진료 안내

한외 내과  
산부인과  
소아과  
통증과  
교통사고 후유증  
각종 환약(보약, 치료약)  
침, 뜸, 부항  
중국 전통식 지압

(732)287-8881  
1734 Lincoln Highway Rt.27, Edison  
에디슨 H-Mart 앞 화장 이전

# HONORS REVIEW

East Brunswick

SAT, ACT, APs, Enrichment Programs  
우성현 스테파노 732-254-3349  
3 Lexington Ave East Brunswick NJ 08816

생지순례, 단체관광, 크루즈 전문

# 가고파여행사

201-802-0820

353 Broad Ave. Suite 203 Leonia, NJ 07605

# 종합건축 AAMD construction

주택, 상가, 무료 상담 및 견적, 면허, 보험소지  
골지 아픈 문제(건축허가, 누수), 비닐담장, 데크, 마루, 욕실, 주방,  
지하실, 상가 리모델 등 건축 전반에 책임사공(기본 1년 보증)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성당 교우 10% DC)  
732-964-9787  
email: aamdconstruction@yahoo.co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 Tel: 732-356-1037  
# Email: office@edisonkcc.org  
# 근무시간: 화~목 10a-3p

http://www.edisonkcc.org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남웅 스테파노

본당부제  
윤석로 이나시오

평협회장  
채희백 바오로

주간 전례 말씀	제1독서/제2독서	복음 말씀
월요일 01/10/21	사무엘기 상권 1,1-8	마르코 1,14-20
화요일 01/11/21	사무엘기 상권 1,9-20	마르코 1,21-28
수요일 01/12/21	사무엘기 상권 3,1-10.19-20	마르코 1,29-39
목요일 01/13/21	사무엘기 상권 4,1-11	마르코 1,40-45
금요일 01/14/21	사무엘기 상권 8,4-7.10-22	마르코 2,1-12
토요일 01/15/21	사무엘기 상권 9,1-4.17-19;10,1	마르코 2,13-17
일요일 01/16/21	이사야서 62,1-5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12,4-11	요한 2,1-11

HYUNDAI TOYOTA KIA NISSAN Mazda Jeep CHRYSLER

# SANSONE

AUTOMALL

BEST CAR, BEST PRICE

90-100 RT.1 Avenel NJ 07001

Manny Kim  
201-852-3232



## 미사지향

연미사	- 봉헌자
• 김진철(요한)	- 가족
• 김경희(수산나)	- 가족
• 최상우	- 최정원(레지나)
• 오흥순(카타리나)	- 가족
• 최규학(프란치스코), 최혜경(데레사)	- 가족
• 이화자(마틸다)	- 가족
• 홍승복	- 임안나
• 이근병	- 유희자(베로니카)
• 김준호(베드로)	- 가족
• 최상옥(마리아)	- 김종화(아가다) 가족
• 김영섭	- 이윤경(비르짓다)

생미사	- 봉헌자
• 이남웅(스테파노) 신부님 사제 서품 기념일 축하 - 채희백(바오로), 전례분과 독서단, 노스브런스윅 구역, 사우스브런스윅 구역, 먼로 구역	
• 윤석로(이냐시오) 부제님	- 노스브런스윅 구역
• 최승웅(미카엘) 부제님	- 노스브런스윅 구역
• 오경선(원선시오)	- 박재영(요아킴) 가족
하건철(안토니오), 이희숙(데레사), 채희백(바오로)	
• 하건철(안토니오)	- 하용무(데레사), 임안나
• 정영철(프란치스코)	- 임안나
• 유병기(베네딕도), 유용희(울리아나) 가정 - Cliff & Carol Rockwell, 주일학교 자모회	
• 에디슨 성당 교우들의 가정	- 박재영(요아킴) 가족
• 노스브런스윅 구역원들	- 노스브런스윅 구역
• 서정근(안셀모), 루시아 가정	- 박재영(요아킴) 가족
• 데레사, 아만다, 요한, 로사, 데이빗, 모니카, 빛나, 달래, 글라라, 폴, 앤디, 엘리사벳, 토마스, 줄리, 썬디	- 임안나
• 채희백(바오로) 가정	- 교우
• 박락준(베드로) 가정	- 교우
• 최정원(레지나) 가정	- 교우
• 오채영(크리스티나)	- 이서형(요안나) 송진영(마리스텔라)

## 주 일 헌금

주일미사 참여 93 명	합계: \$853
2차 헌금(Charity in Together)	합계: \$535

## 교 무 금

정명숙(1-12)	육순재(1-6)	배인호(12)
김동근(1-6)		합계: \$1,700

## 공지사항

# 코로나 관련 마스크 및 사회적 거리 두기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미사 참례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원하시는 신자분들께서는 제대 왼편(성가대 맞은 편)에 앉으시면 됩니다.

### # 2차헌금

- 1월 9일: 유틸리티

### # 매일미사 구독료 및 운송료 인상

- 2022년 1월부로 매일미사 구독료가 기존 \$2.9에서 \$4로 인상되며, 운송료도 기존 \$1에서 \$1.4로 인상됩니다.  
- 2021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매일미사 구독을 신청하신 분들은 1월부터 매월 \$1.4씩 추가로 사무장에게 납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 # 설 합동 위령미사 봉헌 신청

- 1월 30일 주일에는 설 합동 위령 미사가 봉헌됩니다.  
- 설 합동 위령미사 봉헌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청년회 스키 트립

- 일시: 1월 14일(금) - 16일(일)  
- 문의: 청년회장 송민화(비비안나) 602-531-2307

### # 최승웅(미카엘) 부제님 진료 및 영성 상담

- 일시 및 장소: 매 주일 미사 후 오후 2시, 친교실  
- 부제님과 의료 및 영성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에게서는 미사 후 친교실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 # 환우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영철(프란치스코), 하건철(안토니오), 오용덕(헨리코)

### # 달력 배송 지연 안내

- 2022년 본당 달력이 12월 3일에 캘리포니아 롱비치에 도착했지만 미국 전역의 인력난 문제로 하역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 # 꾸리아 새 간부 명단

- 단장 채미영(데레사), 부단장 신용철(다니엘), 서기 김태경(카타리나), 한지혜(크리스티나, 연임)  
- 레지오 마리에 모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레지오 임원이나 단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자원봉사자 모집

- 1월 9일 주일 미사 후 제대 구유 해체를 도와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 1월 15일 토요일 9시에 성당 외관 장식 해체를 도와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루카 복음 > 3,15-16.21-22

그때에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온 백성이 세례를 받은 뒤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태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신 앙 상 식

### 시노드를 한다고 하는데, 시노드가 뭐가요? 신자들 각 개인에게도 중요한 회의인가요?

교황님께서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이하 시노드)를 소집하시어, 전 세계 가톨릭교회에서 시노드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 안에도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권한과 역할을 갖고 계신 분이 교황님과 전 세계의 주교님들이십니다. 초기 교회 때부터 교황님과 주교단이 함께 참석하여 그리스도교 신앙과 생활에 관한 중요한 원칙을 세웠던 회의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공의회’와 ‘시노드’입니다.

공의회 뿐만 아니라, 시노드(synodus) 역시 교회에서 중요한 회의를 지칭하기 위해 오랫동안 함께 쓰여왔습니다. 다만, 지금의 시노드 회의 제도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1965)에서 확립되었습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전 세계 주교단이 모두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 세계 주교단을 대표하는 대의원 주교들이 참석하여 교황님을 도와 중요 현안에 대한 자문을 드리는 회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여 확립된 제도입니다. 시노드는 교황님이 제시하는 주요 현안에 대하여 대의원 주교단이 교황님께 자문을 통해 건의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시노드는 총 15차례 개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노드는 기존의 시노드 개최 방식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교황령 ‘주교들의 친교’를 통해 기존에 전 세계 대의원 주교단만 참여해 왔던 시노드의 진행 방식을 변경하셨습니다. 우선 시노드를 준비단계, 거행단계, 이행단계로 진행하도록 하였고, ‘전문가, 참관인, 형제 대표, 특별 초청 참가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새로 변경된 준비단계에는 특별히 하느님 백성의 협의 과정을 포함하도록 하셨습니다. 교황님과 주교단의 회의인 시노드가 하느님 백성 전체, 곧 평신도, 사목자, 로마의 주교가 함께하는 여정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노드가 하느님 백성 전체가 교회의 중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내고 자문에 함께 참여하는 회의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것이 이번 시노드에 대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특별한 지향입니다.

이에 따라 개별 교구에서 먼저 하느님 백성의 자문을 모으는 과정이 더욱 강조됩니다. 이 과정은 교구 내 평신도, 수도자, 사도직 단체 활동가를 비롯하여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은 물론, 그동안 교회가 무관심했던 이들에 대해서도 그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고, 하느님의 백성과 시노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하느님께서 구원하시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발언의 기회를 제공하고 의견을 경청하는 과정을 거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시노드의 변화는 젊은이, 신앙, 성소적 식별을 다룬 제15차 시노드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젊은이들과 전문가들을 초대하여 시노드에 참석시키는 새로운 방식의 시노드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16차 시노드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교구별 준비단계에서 여러분이 속한 각 성당에서 단체별, 모임별로도 시노드 준비 모임을 할 예정이니만큼, 여러분 각자가 이번 ‘함께 걷는 여정’인 시노드에 동참하면 시노드를 더욱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원래 모습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성직자들의 직장에 평신도가 그저 손님으로 방문하는 곳이 아니라,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믿는 하느님 백성 전체,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곧 하느님 백성이고, 종말의 하느님 나라를 향해 전체 신자들이 함께 걸어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시노드에서 전체 신자들이 의견을 내고 서로 의견을 경청하는 것은, 이 ‘동반하며 걸어가는 교회’의 원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노드라는 말 자체가 ‘함께 걷는 여정’이라는 뜻입니다. 이번 시노드 개막 미사에서 염수정 추기경님께서서 각계각층의 교우들과 함께, 특히 다리가 불편하신 교우의 휠체어를 밀어 드리면서 입당하시는 모습을 보여 주셨는데, 이 모습이 시노드 정신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준다고 하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시노드 정신이 교회의 신앙생활 안에서 적극적으로 구현돼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시노드 정신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하여, 교회가 신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해야 하고, 우리들 각자도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사회적으로 안정된 교회의 현재 상태가 오히려 위기라고 이해하시며, 교회가 중산층화되어 가난한 이들이 떠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일어난 범죄로 상처받은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성직주의를 멀리하며, 전 지구적 감염병으로 더 심해진 인격적 관계 단절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하시죠. 이번 시노드가 이러한 경청과 식별을 통해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에 ‘참여’하며, 친교를 나누고, ‘선교 사명’을 실현해 나가는 기회가 되길 희망해 봅니다.

출처: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